

- 과목명 :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
- 이 름 :
- 아이디 :
- 과제명 : 문법 표현의 예를 둘 이상 들고, 각 문법 표현에 대해 어떤 의미, 형태통사, 화용, 관련어 정보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보시다. 또한 선정한 문법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, 대화 또는 담화 단위의 연습이나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등의 활동 교수방법도 포함하십시오.

<목차>

I. 서론

II. 본론

1. 은/는

2. -는 바람에

III. 결론

I. 서론

- 조사 '은/는'을 선택한 이유

한국어의 경우 이/가, 을/를 들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만들 수 있다.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배우는 영어의 경우 위치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지므로 혼동이 있을 수 있다.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주어와 목적어의 개념을 너무 헷갈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습자들도 조사의 개념을 헷갈릴거 같아서 문장의 기본이 되는 주어를 만들 수 있게 은/는 주격조사를 선택했다.

- '-는 바람에'를 선택한 이유

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.

위 문장에서 '-는 바람에' 와 같은 경우 형태적인 기준에서 관형형 어미 '는', 명사'바람', 조사 '에'를 분리하여 교수하는 것보다 '어미+명사+조사'의 통합 형태가 '원인'의 연결표현이라는 새로운 문법적인 기능으로 가르치는게 유용하다.

그러나 사전 기술 방식을 보면 이들 통합 형태의 문법 표현들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검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. 예를 들면 '-는 바람에'를 사전에서 표제어로는 검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. '-는 바람에'의 구성을 찾기 위해서는 통합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요소를 추정하여 '바람'을 찾아야한다.

II. 본론

1. 은/는

주격 조사 : 문장 안에서,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, '이/가', '께서', '에서' 따위가 있다.

'은/는', '이/가'의 공통 용법

- 주어 자리에 나타난다.
- 붙이는 단어는 끝음절에 받침이 있느냐에 따라 형태를 결정한다.

'은/는', '이/가'의 차이점

-은/는

- : '주제, 대조, 강조'의 의미를 나타낸다.
- : 앞에서 제시한 정보가 반복되어 나타낼 때 사용한다.
- : 부사격 조사나 부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.

-이/가

- : 주어를 나타낸다.
- : 새로운 화제나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공통점

의미 : 명사 뒤에 붙여서 그 명사가 문장의 주체(주어)임을 나타낸다.

-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.
- 저 사람은 회사원이에요.
- 유진씨는 제 친구예요.
- 웨이 씨는 요리사네요.

형태 :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'은' 받침이 없으면 '는'을 쓴다.

- 유진씨 동생은 대학생이에요?
- 네, 제 동생은 대학생이에요.
- 아버지는 요리사예요?
- 네, 아버지는 요리사예요.

차이점 예시

- 오늘은 조사에 대해서 배울거예요.
- 오늘은 은/는이 붙었기 때문에 주어로 착각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주어가 아니다.
- (우리는) 오늘은 조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
- 우리는 오늘 조사에 대해서 배울거예요.

위에 예시처럼 사실 주어인 '우리는'이 생략되어있다.

이처럼 '은/는'과 '이/가'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어 초급 책에서는 '은/는'을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로 배운다. 그리고 주격조사에 은/는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. 아마도 '나'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'나가 한국인이다.' '나이 한국인이다.'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

‘나는 한국인이다.’처럼 문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‘은/는’을 먼저 배운다고 생각한다.

2. -는 바람에

표준국어 대사전 ‘바람’

의존명사

‘-는 바람에’ 구성으로 쓰여,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.

급히 먹는 바람에 체했다.

어제는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이 미끄러웠다.

위에 문장에서 ‘-는 바람에’ 는 ‘어서’로 바꿔 쓸 수 있다.

급히 먹어서 체했다.

어제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.

위 문장처럼 ‘어서’로 바꿔쓸 수 있다.

III. 결론

우리가 자주 쓰는 ‘은/는’ 그리고 회화에서 자주 쓰는 형태는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‘-는 바람에’ 모두 문법적인 것을 배우고 시작하면 끝이 없다. ‘은/는’을 주격조사로 배울 것인지 아니면 부사격 조사로 배울 것인지 처럼 조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 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 위주로 먼저 배운 후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.

1. NAVER 국어사전 - 표준국어대사전

2. 세종한국어 어휘, 표현과 문법 1A
국립국어원

3. 학위논문(박사)

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표현 연구 : 문법표현 선정과 등급화를 중심으로 - 유소영 - 단국대
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